

제목: (계속고용장려금 기업사례) 중장년 베테랑 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 태동 씨앤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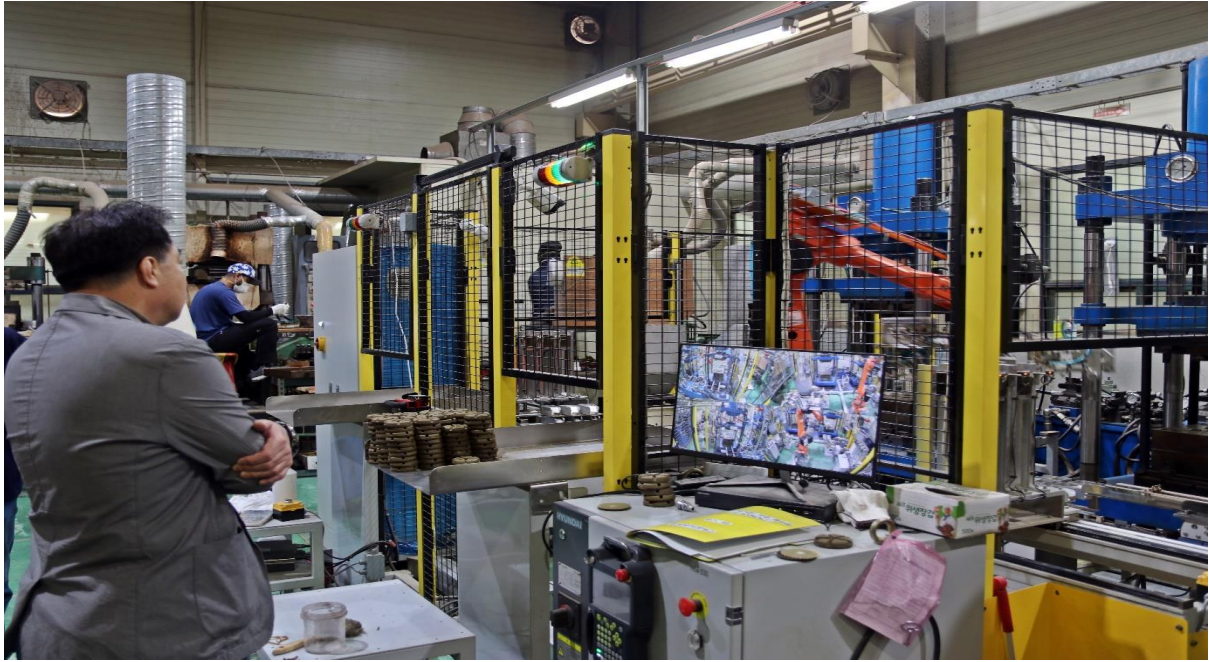
은퇴보단 현장이 더 좋을 나이!

백세 시대인 요즘 4·5·60대의 나이는 더 이상 '끝'이 다가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출발점으로 삼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으니까요.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새 인생 설계를 위해 애쓰는 중, 장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 정책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하우를 쌓은 베테랑들을 정년이 되었다고 해서 떠나 보내기는 회사 입장에서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정년 직원을 다시 고용할 수 있게끔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 경험을 나누고 쌓아가게 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정책! 이 정책을 통해 건강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인천 광역시에 위치한 태동 씨앤에스! 정년 이후에도 함께 힘을 합쳐 회사를 꾸려 나가고 있는 중장년들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997년에 설립된 태동 씨앤에스는 석재 표면 및 콘크리트 연마용 공구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20년이 넘는 잔뼈가 굵은 회사 역사 속에 태동 씨앤에스는 국내업계 중에서는 최초로 콘크리트 연마에 사용되는 'Dry Concrete tool'이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했어요. 현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이 핵심인 회사이다 보니 정년이 된 직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그냥 떠나보내기는 너무 아쉽겠죠? 올해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을 통해 두 명의 직원을 재고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태동 씨앤에스의 현주빈 대표를 만나 보시죠.



Q. 안녕하세요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올해 처음으로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을 통해 정년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정책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A. 고용노동부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됐는데, 마침 회사에 정책 기준에 맞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많아졌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이 됐다고 10년 이상 오래 근무했던 직원들을 쉽게 떠나 보낼 수가 없었는데, 마침 이 정책이 있었던 거죠. 저희에게는 그분들의 노하우가 꼭 필요하거든요.

Q. 정말 필요했던 타이밍에 반갑게 찾아온 정책이네요.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정년 직원들과 다시 함께하게 됐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A. 원래도 정년 직원들을 다시 채용할 생각이었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니 너무 좋죠. 올해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두 명의 직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다시 채용할 직원들이 있어요. 정년 직원들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하거든요. 일을 하고 싶은 의지를 이어가게 해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죠.

Q. 아무래도 태동 씨앤에스는 기술력이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 더욱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A. 맞아요. 우리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라 그 자질이나 테크닉을 계속 활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힘으로 하는 일은 없거든요(웃음). 노하우가 쌓인 기술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죠.

Q. 올해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다시 채용된 두 분의 반응은 어떤던가요?

A. 현재 정책상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진다고 하니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도 지원을 받으며 업무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게 생각할 일인 거죠.



Q.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보이시는데, 주변의 기업이나 중장년들에게도 추천할 만 한가요?

A. 이 정책을 더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직은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또래의 모임에 나가봐도 아직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좋은 정책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회사마다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Q. 혹시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도 있을까요?

A.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분명 도움이 돼요. 다만, 그 상한 금액이 있는지는 뒤늦게 알게 됐어요. 지원 조건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렴, 정년이 지난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되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한액에 대한 개선은 조금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Q.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회사의 미래가 더 밝아지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계속고용장려금 정책을 활용해보신 입장에서 앞으로 새로 개발됐으면 하는 정책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미 오랜 시간 온 국민이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창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고용을 하고 싶어도 데려올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또 한 번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